



그대가 그대로여도

성신고 1-6 김가은

“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상처 없이도 잘 자랐으리라 믿는다. 나는 널 상처 없이 지켜주고 싶다. 심지어 그대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대도 상관없다.”

친구가 나에게 써준 편지 속 한 부분이었다. 누군가에겐 그저 글로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장해야한다는 압박감 속에 움츠려 있던 나는, 알 수 없는 고요함과 따뜻함에 멍해졌다. 그 따뜻함의 농도는 바닷물보다 진했고, 따뜻함의 온도는 햇살보다 뜨거웠다. 그리고 그 농도와 온도는 나의 굳고 차가워진 마음을 수용하고 녹이기에 충분했다.

사람들은 누구나 “성장”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간다.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, 더 발전해야한다는, 더 좋은 결과만 가져와야한다는 그런 소음들이 넝쿨이 되어 성장해야한다는 압박감을 만든다. 언제부터였을까, 나도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다. 그때의 나에게겐 가치 있는 사랑은 곧 성장이 빠른 사랑이었다. 늘 뒤쳐질까 두려웠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 불안했다. 그렇게 스스로를 넝쿨 속에 가두다 보니 거울 속의 진실된 나를 마주하지



못했다. 그런 내게 그 편지는 낯설 만큼 다정했다. 전혀 성장하지 못한대도 상관없다는 말이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날 인정해 주고 가치 있게 봐주는 것 같았다.

그 편지를 읽고 나는 생각했다. 왜 나는 좋은 결과가 곧 성장이라고 생각했는지 또 왜 남들보다 앞서고 싶었던 것인지. 지금의 나는 알고 있다. 성장은 그저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내고 남들을 제치는 게 아니라 상처와 걸림돌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한 발짝 내딛는 거라는 것을. 그리고 성장은 그저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할 때도 나타나는 거라고. 그렇게 편지는 내 마음을 흔들었고 나는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. 조금함 속에서 잃었던 내 진실된 마음의 조각들을 찾고 조금 더 여유롭지만 완전한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.

물론 그 뒤로도 가끔은 성장해야한다는 생각의 폭풍이 나를 휩쓸어 자책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. 길 가다 문득 고개를 올렸을 때 보인 넓고 푸른 하늘을 보며 난 왜 이리 작은 건지 또 친구의 좋은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, 또다시 스스로를 성장의 압박 속 넝쿨에 가두려고 하는 날 다시 마주하기도 했다.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해지지 말자고, 되뇌며 서랍 속 그 편지 한 장을 계속 읽었다. 종이 위 잉크가 번져 내 마음에 스며들고 녹을 때까지. 그렇게 난 다시 빠른 성장과 성취만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. 좀 더 여유롭게 나를 다독이자고.

앞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편지가 되고 싶다. 떨리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마음을 다독이고 달래며 “지금 그 속도로도, 그 모습

으로도 괜찮다”라고 전할 수 있는 한 통의 편지. 편지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종이 위 마음을 꼭꼭 눌러 담은 글자만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, 마음을 이어주고 온기를 나누게 한다.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따뜻해진다. 이렇게 편지를 통해 배운 사랑은 또 다른 편지가 되어 다른 형태로 퍼진다.

성장이라는 이름 아래에 조급하던 내가, 친구가 쓴 편지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며 더 진정하고 완전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. 그리고 언젠가, 누군가에게 전해질 진심을 눌러 담은 편지가 그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. 편지는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것이고 나는 그 마음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한다.

그러니 성장의 압박 속에서 갈피를 못 잡는 그대들아,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진정한 나를 마주하자. 상처투성이에서 벗어나 한 통의 편지 같은 사람이 되자.

그대는 그대로여도 충분하다.

